

영산강가에서 인생 뒀안길을 돌아보다

문순태 작가 '영산강 칸타타' 펴내 6·25의 경험·생오지 시절 추억 등 커피 매개 지나는 삶 이야기 서술 "사는 동안 글 쓰기 멈추지 않을것"



문순태 소설가가 최근 자전적 장편소설 '영산강 칸타타'를 펴냈다. <광주일보 자료>

시와 에세이, 소설을 집목해 영산강과 함께해온 삶을 유장하게 풀어낸다. 문순태 소설가는 한의 정서를 토대로 개성적이며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열어왔던 남도를 대표하는 소설가다. 그의 작품에 드리워진 한(恨)은 민초들의 아픔, 슬픔, 눈물을 대변한다.

그에게 '영산강'은 삶의 시원이자 문학세계를 이루는 가장 원초적인 공간이다. 아마도 그를 키운 것은 '말할이 영산강이었을 것'이다. 대하소설 '타오르는 강' (전 9권)에서 문 작가는 억압받는 민초들과 기층민중들의 짙진한 삶을 광주학생독립운동 등과 연계해 근대사를 깊이 있게 풀어낸 바 있다.

젊은 시절 그는 신문기자, 소설가로, 대학교수로 다양한 영역에서 의미있는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가장 문순태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바로 '소설가'라는 타이틀이다.

올해 87세인 문 작가가 영산강을 모티브로 장편소설 '영산강 칸타타'를 펴내 '화제'다. '소설을 쓰지 않는다면 작가의 본분을 망각하거나,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견지하기 어렵다'는 그의 말대로 여전히 현역작가로 창작에 매진하고 있다.

문 작가는 23일 전화 통화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썼다. 부끄러운 내 삶의 뒀안길이다"며 "6·25의 체험, 생오지 시절의 추억, 그리고 인생 만년에 영산강 인근으로 와서 살게 된 이야기 등을 썼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설 제목을 '영산강 칸타타'라고 한 것은 바흐가 작곡한 곡 가운데 '커피 칸타타'라는 작품에서 차용했다."며 "작품 속 화자는 영산강가에 살며 커피를 매개로 지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작가에 따르면 그는 젊은 시절 스승인 김현승 시인으로부터 커피를 배웠다. "내 삶의 상당한 부분을 커피가 차지하고 있을 만큼 커피가 큰 영향을 주었다"는 말에서 보듯, 창작을 하는 동안 그가 커피에 심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학적 관점에서 커피는 그에게 '검은 눈물'로



문순태 소설가가 최근 자전적 장편소설 '영산강 칸타타'를 펴냈다.

다가온다. "제 3세계 국가인 과테말라는 군부 독재 시절 많은 민초들이 학살을 당한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며 "검은 커피는 억울하게 죽어갔던 농민들이 흘렸던 '검은 눈물'이다"고 문 작가는 말했다.

또한 "과테말라 안티 구아 커피는 특유의 향기, 냇내가 진하다"며 "그것의 향기는 창작에 대한 열망, 민초들에 대한 원혼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기제"라고 부연했다.

이번 자전적 소설은 형식을 초월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시와 소설, 에세이 등이 융합돼 있는데, 말 그대로 붓이 흘러가는 대로 작품을 썼다는 것을 보여준다.

작가는 이번 장편을 완성하기 위해 하루에 두 시간씩 글을 썼다. 당초 1500매 분량이었었는데 조금 줄여 1200매로 완성했다고 한다.

문 작가는 지난 2006년 대학(광주대 문창과)에서 정년을 마치고 햇자리 담양 생오지로 들어갔다. 유년의 기억과 전쟁의 상흔, 가난의 고통이 서린 무등산 뒷자락에서 인생의 후반전을 계획했던 것이다. 그러다 2024년 나주 '타오르는 강 문학관' 개관과 맞물려 영산강 인근으로 거처를 옮겼다.

영산강이 운명의 강이자, 인생의 강, 작가 자신으로 치환되는 이이다. 작가로서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하는 시기 '타오르는 강'을 집필했고 인생 만년에 이른 작금에는 아침저녁 영산강을 바라보며 자연의 순리, 예술과 인생 등을 사유하며 '마지막 삶을 불태우고' 있기 때문이다.

"영산강을 바라보며 아내와 함께 마시는 커피는 무엇에 비할 수 없는 행복감을 준다"며 "사람이 기호품 하나 가지고 사는 것은 행복한 일인데 내게 흥여와 커피는 소울 푸드나 마찬가지로"고 그는 밝혔다.

그칠 줄 모르는 문 작가의 창작 열정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전라도적 인 정서와 무등산과 영산강을 닮은 웅숭깊은 기질 때문일 수도 있겠다 싶다.

향후 계획을 물었더니 그는 젊은 시절 '소설 스승'인 김동리 작가가 써준 '자강불식'(自強不怠)을 예기했다. '스스로 힘써 쉬지 않는다'는 말은, 살아 있는 한 글을 쓰겠다는 다짐과 겹쳐진다.

"김동리 선생은, 작가는 '죽을 때까지 붓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작가는 쓰고 있어야 작가라고 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쉬지 말고 갈고 닦으라'는 자강불식을 늘 생각하며 살아 있는 한 글쓰기를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다. 하느님이 허락해주시면 앞으로 또 한권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3·1절 맞아 '파리장서' 원본 공개

국립한국문화재단, '3월을 빛낸 문학인' 광종석·김창숙 작가 선정

국립한국문화재단은 3·1절을 맞아 3월의 '이달을 빛낸 문학인'으로 광종석과 김창숙을 선정하고 관련 자료인 '파리장서' 원본을 24일 공개했다.

공개한 파리장서는 3·1운동 직후 전국의 유학자들이 연합해 '파리평화회의'에 보낸 서한의 원본으로, 광종석과 김창숙이 협의해 작성한 것이다.

광종석의 친필본 작성됐고, 후대 한학자인 이가 원고 정무원이 작품을 감상하고 쓴 배관기(拜觀記)를 덧붙인 것이어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이른바 파리장서 사건은 3·1 독립선언서의 민족대표에 포함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한 전국의 유학자들이 파리평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보내기로 한 데서 비롯됐다.

김창숙이 대표 역할을 맡아 지역의 유학자들에게 담당자를 파견해 뜻을 모았고, 김창숙의 스승이자 학문적 동지였던 거창의 광종석에게 초안을 부탁하고 함께 자구를 따져가며 최종본을 완성했다.

파리장서는 여러 문헌에 그 내용이 전해지고 있지만, 원본이 공개된 적은 없다고 문화재단은 설명했다.

국립한국문화재단은 "이번 자료 공개를 통해 그



실체를 온전히 확인할 수 있게 된 셈"이라며 "신분과 처지를 막론한 전 국민적 독립운동으로서의 3·1운동의 의미를 실감하게 하는 자료"라고 말했다.

또 정치적 무게와 문학적 전달력을 함께 갖춘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달을 빛낸 문학인'은 국립한국문화재단이 기획한 새 사업으로, 매달 기념할 만한 문학인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서시·별 헤는 밤...음악으로 듣는 '운동주'

밴드 '눈오는 지도', 81주기 맞아 28일 뉴저지서 추모 공연

재미동포 음악인들로 이뤄진 밴드 '눈오는 지도'가 운동주 시인의 81주기(2월16일)를 맞아 추모 공연을 진행한다.

밴드 측은 오는 28일 오후 7시(현지시간) 미국 뉴저지하인성공회 건물에서 운동주 추모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일제 강점기인 1917년 중국 만주에서 태어난 운동주는 교토(京都) 도시샤(同志社) 대학에서 유학하던 1943년 7월 항일운동 혐의로 체포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45년 2월 16일 후쿠오카 교도소에서 숨졌다.

2005년 결성한 밴드는 2007년 운동주의 62주기를 시작으로 매년 추모 공연을 열어왔다. 밴드의 이름 역시 운동주의 시 '눈오는 지도'에서 따왔다.



밴드는 그간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해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도 공연했다. 밴드에서는 리더 한은준(통기타) 씨를 중심으로 노성종(베이스), 유혜민(노래 및 건반), 김희정(해금), 정재영(전자 기타), 차승현(드럼) 씨 등이 활동 중이다.

밴드는 공연에서 '서시', '별 헤는 밤', '또 다른 고향', '십자가', '눈 오는 지도' 등 운동주의 시에 곡을 붙인 노래를 선보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우리동네 도서관에서 배우는 '미디어'

한국언론진흥재단 평생교실...강사 파견 전 연령대 교육

국민의 미디어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동네 도서관과 지역 아동센터 등에서 미디어교육이 실시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올해 전국 도서관, 지역 아동센터, 지역 미디어센터, 평생교육원 등 비영리

사회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미디어교육 평생교실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총 330개 기관에 최대 20시간 동안 미디어교육 전문강사를 파견해 지역 주민과 이용자들이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육기관 특성에 맞춰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할 수 있으며, 올해 사업에선 다문화가정, 학교 밖 청소년,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을 중점 지원한다고 재단은 밝혔다.

다음 달 6일까지 1차로 200개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미디어교육 플랫폼 미카(meca.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연합뉴스

시인이 뽑은 '내일의 젊은 시인' 1위 임유영

알라딘, 추천 시인·편집자 136명과 시집 리스트 홈페이지 공개

인터넷서점 알라딘은 시인 80명과 시 편집자 14명이 선정한 '내일의 젊은 시인' 1위에 임유영(사진)이 뽑혔다고 최근 전했다.

김소연·오은 시인 등 총 20명의 추천을 받은 임유영은 2020년 문학동네신인상을 받고 등단한 후 시집 '올댓'을 냈다.

그는 "문단을 넘어 우리 너른 문학공동체의 추천이라는 사실로부터 무척 큰 격려를 얻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2위는 시집 '나 외계인이 될지도 몰라'와 '검은



머리 짐승사전'의 신이인, 3위는 시집 '잉걸 설랑'의 송희지가 각각 차지했다. 김보나와 이세해 시인이 4위와 5위에 올랐다. 알라딘은 홈페이지에 '내일의 젊은 시인' 페이지를 마련하고 시인과 편집자들이 추천한 시인 136명 전체와 시집 리스트를 공개했다. /연합뉴스

DK 디케이 주식회사

공기의 새로운 정의
공간을 빛내는 선택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집 공기의 깨끗함입니다.
늘 깨끗한 집, 늘 건강한 삶.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